

베네수엘라에는 3월부터 시작된 자가격리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닫힌 상태이고, 도시간의 이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는 매일 1천명이 확진자라고 하지만, 진실된 수치는 10배가 넘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리더 1명과 학생사역 리더 어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구제 사역의 현지인 목사님과 가족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투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아마존에 있던 엘리아 선교사 가족이 카라카스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마존 사역은 또다른 5명의 현지인 리더그룹을 세워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훈련사역 (ELG 글로벌 리더십 스쿨)
7월 28일에는 대학생 사역의 1, 2, 3기 (약 200여명)가 온라인 생방송(ZOOM과 FACEBOOK LIVE)으로 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간증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임이후 8월부터는 실제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7가지 영역 (교회, 정치, 교육, 가정, 문화, 미디어, 경제)으로 단체그룹을 만들고, 각자의 부르심에 속한 영역에 들어가 성경적 세계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기도하며 자기 영역을 변화시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룹채팅과 온라인 모임으로 독서토론, 세계관 교육, 각 영역의 토론 등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베네수엘라 선교센터
감사하게도 베네수엘라 선교센터는 조엘 선교사를 통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곳곳을 청소하고 수리하며 지금의 상황이 끝난 후 선교센터를 통해 신학교, 티디, 대학생 사역 등을 활기차게 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제 사역
어려운 때에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으로 신학교 목사님 교회들 중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성도님들과 베네수엘라 선교센터의 근교 동네의 어려운 가정들에게 음식봉투를 전달해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
판데믹으로 3월이후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학교 사역을 더이상 미룰 수 없기에 온라인 강의로 8월말부터 5주간 신학교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고를 하자마자 2일만에 80%가 넘는 160명의 목사님들이 접속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날마다 부으시는 주님의 지혜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부탁 드리며 ---베네수엘라에서 김도현, 강미애, 김예림, 김예준 가족 드림

기도 제목
4년전, 아마존 선교센터의 근처의 땅을 거의 기증받다시피 저렴하게 구입 했는데 입구가 다르고, 중간에 다른 땅이 있어서 쓰기가 애매하여 어떻게 쓸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땅과 선교센터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위치한 대지가 4000달러에 나왔습니다 (예전가격 1만불). 만약 이 땅을 구입할 수 있다면 세계의 땅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나라가 바뀌어 다시 인디언 사역을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재정과 대지 구입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은혜한인교회

2020년 8월 23일 선교사 현황 58개국 344명 자체파송 71%

M국에서 정성껏 만든, 분량을 향유하며 나누는 청년 예배공동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시 22:27)
영적 불모지인 이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열매가 예배로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청년 예배는 감사와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함께 한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속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불교적 사고방식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조금씩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은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청년 예배 공동체 되도록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집 고아원 및 청년사역

예배와 찬양 기도의 생활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가능하기에 성경 스토리텔링으로 고아원 아이들이 따스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된 김윤정 선생님이 아침부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를 준비해 함께 나누며 코로나로 늦게 신학기가 시작되는 고아원 아이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학업을 마치게 되면 고아원을 떠나 가정부 일을 하거나 타 지역에서 일용직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이마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청년 직업교육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고아원 청년과 지역 가난한 청년에게 직업교육을 진행하고 병행하여 교육을 마치게 되는 청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지속적인 믿음생활과 복음의 통로가 되는 청년 자립공동체의 기반이 다져지도록 더많은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성전 건축 및 차세대 교육 건축에 대해서
- 3차 건축 검사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으며 계속해서 안전하게 건축이 되고부족한 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2. 파우지 M&G 교육센터
- 차세대 교육 사역인 'Computational Thinking' 교육을 진행 하고 첫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교육과정을 지혜롭게 준비 해갈수있도록
3. 비전을 품고 나가는 청년 예배공동체가 말씀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며 영적 어려움을 잘 이겨 청년자립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수 있도록 .
4. Covid-19으로많은어려움이있지만 복음 사역을 잘감당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바랍니다 특별히 아내가 수술 후 건강이 회복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M국에서 김정훈/김윤정 선교사



나의계획이아닌주님의계획안에서 ~ ~

샬롬~ ^^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걷는 저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 기도 제목은~
1.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2. 언어(영어)를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3.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4. 몰도바에 계속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5.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1 축복합니다~1
주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한국(몰도바)에서~ 정석영선교사

V 국에서 주님의 한량없는은혜와 감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의어려운상황가운데서도 늘 기도해주시는은혜한인교회모든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사업에 소식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기도제목-
1. V 국이 믿음의 가정이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2. V 국이 모든 코로나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기독교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3. V 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안정되어 평화하게 하옵소서!
 4. 모든 이웃 나라와 화합하며 1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되게 하옵소서
 5. 저희 부부와 모든 동역자들에게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고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OO 선교사

하나님을 아는지식이 없기에 우상숭배와 억압과 속박을 되물림해주는T 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심을 굳게 믿고 모두 복음으로 힘있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땅 바다 모든 길이 막혀 선교지에서 내리 7개월의 시간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래 저희들은 3개월 체류 1년 비즈니스 비자)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영혼들에게 마지막 때의 경고를 전하며 긴박하게 복음을 전하며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저희는 한국 입국과 동시 14일동안 격리생활을 하였고 오늘에야 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사역기간 내내 또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주 후부터 천보산 기도원 숙소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출국이 까다로운데 어느 정도 상황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지로 나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상이변과 폭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복음이 증거될 때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더욱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 기도 제목
1. 코로나로 인해 막힌 복음 전파의 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2. 우리나라와 민족이 힘있게 굳건하게 서도록.
 3. 우리 민족이 또한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도록. 선교동력과 힘을 잃지 않게.
 4. 마지막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모략과 능력,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도록
 5. 티벳 영혼들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믿음의 사람들 늘어나도록
 6. 방황하는 영혼들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되 식솔과 친지와 티벳 민족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특별히 런칭, 축송)
 7. 복음을 받을 준비된 티벳영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8. 중보 하시는 모든 분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늘 축복,보호해주시기를

T국 김요한 한생명 선교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16:33)"



케냐는 약 4개월 만에 지역봉쇄가 해제되고....

샬롬! 우리의 상급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오늘도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케냐는 약 4개월 만에 지역봉쇄가 해제되고 8월부터는 제한적으로 국제선도 운항을 재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것 마냥 마스크도 다 벗어 던지고 이동하는 차와 사람들도 무척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일일 검사 대비 확진자가 10~20%에 달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 속에 생활이 되었고 이 생활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케냐도 계속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국민들에게 우선적인 문제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생계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구제현금을 받게 되었고, 이것으로 170여명의 학교 아이들 모두에게 옥수수가루 2kg, 콩 1kg, 설탕 1kg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나눔 사역의 시작이 되어 나눔을 위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는 마라파 지역의 17개 GMI 교회에 옥수수가루 1톤을 나누어 주었고, 저희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단교회들도 다 나누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기도의 응답처럼 큰빛교회 목사님께서 헌금을 보내주셨고, 5개 지역, 38개 교회(보이 지역 8교회, 타베타 지역 6교회, 팔레 지역 16교회, 타나리버 지역 2교회, 말린디 근방과 킬리피 지역 6교회)에 약 2.5톤의 옥수수 가루가 전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눔의 기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컸습니다. 저희는 받은 헌금으로 식량을 사서 나누어 주는 일만 하였는데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였는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학교 아이들의 각 가정과 교사들, 각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진정 선한 사마리아 이웃의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7월 마지막 날까지 숙제를 받아가고, 원래 학사 일정에 8월은 방학이라서 한 달 쉬면서 교사들은 9월에 나갈 숙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초등학교와 신학교 모두 내년엔 리오픈하게 되면 학제나 위생, 방역적인 모든 면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배움이 멈춘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 것을 볼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역봉쇄가 해제되면서 교회 현장 예배도 다시 시작되었는데 비접촉식 체온계나 예배당 안에서의 거리 유지, 예배에 참석하는 연령대, 1시간 내에 예배를 마치라는 등의 정부 방침들은 사실 이곳에서 지키기 어려운 규정들입니다. 시골 교회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는데 본 적도 없는 체온계를 구입할 돈도 없고 사용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기도제목>
1. 이 땅을 향한 애통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도록
 2.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일상과 사역이 회복되도록
 3. 이후의 사역을 위해 잘 준비되도록
 4. 교회와 신학교, 학교에 속한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5. 나눔의 사역이 계속되도록
 6. 저희 가정,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케냐황성식/원지혜선교사



더욱 자세한 선교사님의 소식은 gmimission.org에서 확인하세요.